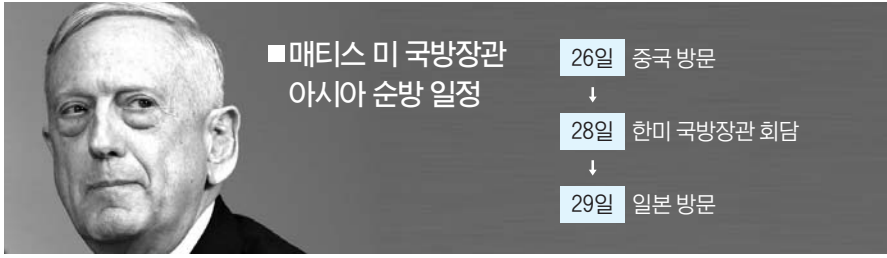


매티스 “北에 비핵화 시간표 내밀겠다”

(미국 국방장관)

이번주 중·한·일 잇따라 방문 “관련국 공동 목표는 CVID” 한미훈련 중단 들어 북·중 압박



■매티스 미 국방장관
아시아 순방 일정

- 26일 중국 방문
-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 29일 일본 방문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며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들은 이어 “우리는 그들(북한)이 선의를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국방 관리의 언급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을 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문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매티스 장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아시아 순방에 앞서 이날 알래스카에 도착한 매티스 장관은 포트 그릴리 기지와 에일스 공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26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28일 오후 한국으로 건너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9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분석했다.

AP 통신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순방에서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관한 중국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은 매티스 장관이 중국에 대북 경제 압력을 강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매티스 장관과 중국 지도부의 대화에서 북한이 최우선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것은 한반

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북핵 문제의 구체적 진전과 연계해 북한과 중국 등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로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는 미국의 방위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아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내에서 패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2014년 이후 미국 국방장관의 첫 중국 행(行)인 이번 방문은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되는 동시에 북핵 협상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취임 후 17개월 동안 아시아를 7번 방문하면서 한 번도 중국을 찾지 않았던 매티스 장관은 중국 국방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38〉 명장 복고희은

복고희은(僕固懷恩, ?~765)은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당 조정으로부터 모반 혐의를 받고 반기를 들었으나 도중에 병사하였다.

영하 자치구의 복고부 수령 출신으로 755년 안녹산의 난을 계기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삭방절도사 광자의 휘하에서 좌무봉사직을 맡아 안녹산의 대동군사 고수압, 대동병마사 설충의를 격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756년 그의 아들 복고빈이 적군에게 항복했다가 도망쳐 돌아오자 목을 베었다. 충성심이 강했고 군대의 규율이 엄했다. 장수와 병사들은 다리를 떨며 무서워해 일당백의 무용을 보였다. 황

족인 둔황왕 이숙체와 함께 회홀에 사신으로 가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757년 회홀의 지원에 힘입어 장안을

태위로 오자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중사 낙봉선 역시 신운경을 만난 후 장안에 돌아와 반란을 모의하였다고 주문을 올렸다. 집안사람 가운데 왕조를 위해 죽은 사람이 46명이었고 회홀을 회유하고 낙양과 장안을 수복하였는데 모함을 받으니 원통한 마음에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올렸다. 황제는 배견경을 파견해 위로하고 장안으로 와 조현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죽을까 두렵다며 조현을 사양하였다. 이로써 그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763년 10월 토번이 변경을 넘어서 장안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는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광자의 등이 힘을 써 토번군을 격퇴해 위기를 벗어났다.

안녹산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대녕군왕에 봉해졌고 중서령이 되었다. 아들 복고창은 어사대부 겸 절도사가 되었다. 조정의 견제에 갈수록 심해지자

안녹산의 난 진압했으나 전장서 병사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사업의 당군과 회홀군의 합동작전이 성공하였다. 장안이 함락된지 1년 4개월만에 회복한 셈이다. 안녹산의 뒤를 이은 안경서는 15만명을 동원해 낙양 방위에 나섰다. 당군이 회홀과 함께 협력하자 적군의 사체가 들끓었다. 안경서는 성을 탈출하면서 당의 가서한, 정천호 등 30여명을 죽였다.

758년 숙종은 자신의 딸 영국공주를 회홀에 시집보냈고 복고희은의 딸과 비가 될 가한의 아들이 혼인하였다. 반군의 새 지도자 사사명과 당은 761년 낙양 북쪽 망산에서 일전을 겨루었다. 그가 이광필의 조언을 무시하고 평원에 진을 쳤다가 사사명군에게 대패했다. 이광필과 복고희은은 산서성쪽으로 도망쳤고 낙양은 다시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하북이 수복되자 회홀군의 귀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고희은을 못 마땅히 여긴 세력은 그가 회홀과 결탁해 당의 화근이 될 수 있음을 거론했다. 조성현위 마수는 “복고희은은 공로를 세운 것을 받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그 아들 복고창은 용감하고 경박한데, 밖을 뜻하고 안을 잊고 있으므로 깊이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하동절도사 신운경은 그가 회홀을 전송하기 위해

반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결국 하동도지명마사 이갈성과 더불어 태원을 빼앗으려 모의하였다. 절도사 신운경이 이에 대비하자 아들 복고창에게 명해 공격하였지만 대패했다. 황제는 “복고희은은 부자는 집에 죄를 진 것이 실의 사체가 들끓었다. 안경서는 성을 탈출하면서 당의 가서한, 정천호 등 30여명을 죽였다.”

“복고희은은 공로를 세운 것을 받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그 아들 복고창은 용감하고 경박한데, 밖을 뜻하고 안을 잊고 있으므로 깊이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하동절도사 신운경은 그가 회홀을 전송하기 위해

반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결국 하동도지명마사 이갈성과 더불어 태원을 빼앗으려 모의하였다. 절도사 신운경이 이에 대비하자 아들 복고창에게 명해 공격하였지만 대패했다. 황제는 “복고희은은 부자는 집에 죄를 진 것이 실의 사체가 들끓었다. 안경서는 성을 탈출하면서 당의 가서한, 정천호 등 30여명을 죽였다.”

홍보 효과 챙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133억원 지출

싱가포르 정부는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쓴 비용이 총 1630만 싱가포르 달러(133억5000만원)라고 밝혔다. 로이터와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정부가 부담한 실제 비용은 약 1630만 싱가포르 달러이며 보안이 가장 큰 요소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이같은 수치를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사용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어 “싱가포르는 회담을 주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애초 발표한 예상 비용 2000만 싱가포르 달러(163억 80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그릴라 호텔 숙박 비용을 포함해 대표단 체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의 투숙 비용은 싱가포르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투숙했던 김 위원장은 하루 숙박료가 1만2000 싱가포르 달러(982만원)에 이르는 스위트에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회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마케팅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번 회담으로 비용 대비 10배가 넘는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난민문제 해법 못찾은 EU 난민문제 논의를 위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오른쪽 3번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줄 왼쪽) 등의 모습이 보인다.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난민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당사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김정은에 ‘중전선언’ 보류 요청

日 언론 “북미회담 전에 전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중전선언’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도쿄신문은 2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중국발 기사에서 시 주석이 지난달 조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당시 북·중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에는 북한과 함께 참전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설명했

다”며 “북미 정상만이 중전을 선언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이러한 생각을 거듭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